

♣ 강릉시청 IBS시설관리팀 (청사시설관리팀) 함이호 팀장 ♣

“열관리인들도 프로페셔널(Professional) 정신이 필요합니다”

1. 함이호 팀장님이 기술고문으로 계신 강릉공조냉동기사협회에 대해 소개해 주십시오.

- 강릉공조냉동기사협회는 지난 1990년도에 발족한 사회단체입니다. 강원도 영동지방에 근무하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공조·냉동분야 기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원간의 친목도모는 물론 취업지원 및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초기에는 활발한 활동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지역 관련산업의 침체와 고용체계가 용역화되는 등 업계전반에 걸친 침체로 인해 현재는 30여명의 소수 회원만으로 공조냉동분야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임체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 최근 보일러 기능장을 취득하신 것에 대해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제가 열관리분야에 입문한 것이 1981년도에 열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부터입니다. 20여년을 열관리인으로 있으면서 생산공장, 건설회사, 체인호텔 시설제빙 등 다양한 현장들을 거치면서 지난 1992년 고향인 강릉시청 기술분야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관리인으로써 열관리인의 길을 걸어오면서 나름대로 쌓은 노하우와 꾸준히 정리해 놓았던 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기능장시험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이루어 냈습니다. 우리 열관리분야도 이제는 아닐로그시대를

벗어나 디지털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시설을 관리하는 최첨단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편적인 기술과 관리능력으로는 곧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발빠르게 최신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언제 도태될지 모르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3. 함이호 팀장님이 근무하고 계신 강릉시청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강릉시청은 행정수요의 증가와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3곳에 흩어져 있던 청사건물을 2001년 12월에 하나로 묶어 첨단시설을 갖춘 신청사로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청사시설규모는 부지면적 142,000㎡, 건축연면적 38,000㎡(약 13,000여평)에 노통연보일러 6톤/h-2대, 관류보일러 0.8톤/h-1대, 빙축열설비, 수전설비 5,300KVA, 소방설비, 가스설비, 승강기 설비 등 첨단 IBS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저는 IBS시설관리팀(청사시설관리팀)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4. 팀장님이 평소 가지고 계신 생활 신조나 가치관이 있다면?

저는 운동선수들만 프로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한명의 직업인으로서 자기가치를 향상시키고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 못지 않는 프로페셔널(Professional) 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본인 스스로는 물론이고 기업주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기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저는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 단어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과 당당한 자기목적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5. 향후 열관리협회와 강릉공조냉동기사협회의에 바라시는 점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 개선해야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열관리인들의 구심점을 굳건히 지켜주었던 협회가 구심점으로서의 자리매김에 힘썼다면 향후에는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자기개발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고용환경은 날로 열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분야도 비정규직인 용역화가 급속히 확산되어 고용불안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해 자기 가치를 스스로 창출하고, 협회에 힘을 실어주며, 협회에서도 회원들의 필요와 요구를 헤아려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가지 좋은 예가 협회에서 실시하는 흡수식냉온수기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가 꼭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몇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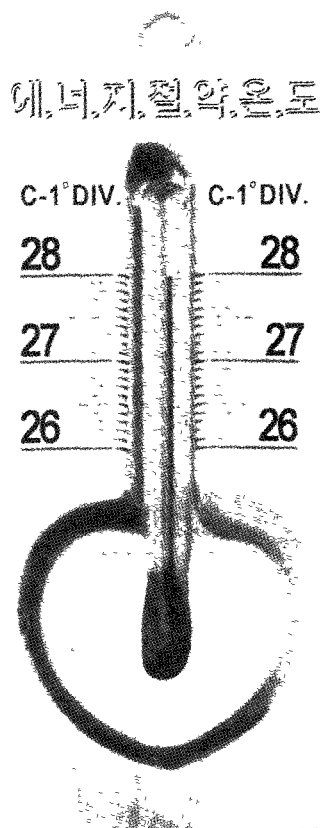


관행적으로 행정분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열관리인들의 선해임권을 민간전문기관인 협회에 돌려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우리 열관리인들의 업무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흡수식냉온수기의 국가공인화는 새로운 기술환경에 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으나, 다만, 기존 열관리자와 냉동시설관리자가 혼란을 유발할 소지가 있으므로 협회의 다양한 홍보가 절실하며 그와 함께 검사대상기기로 흡수하려는 노력에 협회는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열관련 관계법령의 맹점이 안전관리의 기준을 압력부분에만 치우치다보니 흡수식냉온수기와 같은 새로운 설비는 누락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과 국민의 안전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음을 정부에 주시시켜 우리 열관리인의 권익이 향상되고 그에 걸맞은 대우와 일자리 창출이 조금이라도 좋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광고는 전력기반기금을 활용한 캠페인입니다.

여름철 적정 냉방온도는 26~28℃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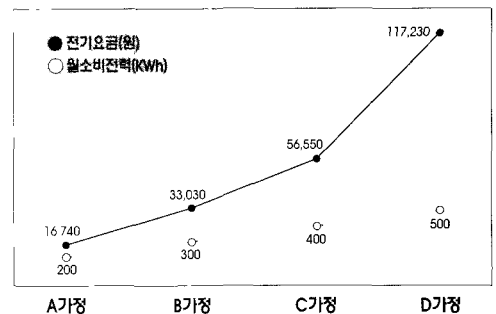
실내외 온도차가 5℃를 넘지 않도록 적정 냉방온도를 유지하여 전력낭비를 줄이고 여름철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여름철 전기절약 실천방법

- ▶가전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를 뽑으십시오.
 - 절감량 국내가정부문 전기사용량의 11%에 해당
- ▶에어컨을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전력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율을 적용한 가정용 전기요금



× D가정은 A가정보다 월소비전력은 250% 증가한 반면, 전기요금은 누진제도에 의해 700% 증가한 117,230원을 부담